

여야 “실종자 구조 우선... 방해행위 자제를” 야 “각종 의혹 증폭... 국정조사 발동해야”

여야 ‘천안함 침몰’ 정보위 개최 등 공방

천안함 침몰 닷새째인 30일 여야가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정보위원회 개최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고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실종자 구조 및 군(軍)과 정부의 사고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특히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여 천안함 침몰 사건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강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성숙한 태도로 지켜보지만 뭔가 분명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군 당국이나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불신과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나라당의 빠른 응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도 한나라당이 입을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군 당국이 감추려 하고 밝히기 싫어하는 것을 국회가 밝혀내는 것에 대해 불만해하는 것 같다”며 국회 정보위 소집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등 정보당국으로부터 조계함 침몰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능동대응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도 “전면적이고 정밀한 국정조사를 당장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현장 지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관계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안질의를 실종자 구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진상조사 특위 구성 문제도 마지막까지 실종장병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의하는 게 순리”라며 야당의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를 일축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에서 31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진상조사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능하다”며 “정치권은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방해되는 행위를 자제하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후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 현장인 백령도를 방문해 구조작업중인 독도함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실종자가족이 탑승하고 있는 광양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창외대 제공>

야당의 국회 정보위 개최 요구와 관련,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지금 국민적 관심사는 실종자를 빨리 수색·구조하는 것이고, 침몰 원인을 찾는 것은 국방위가 담당하고

있다”며 “정보위가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 나서겠지만, 현재는 정보위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美 “북 개입 추정근거 없어... 충분한 조사 중요”

미국 국무부는 29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은 이날 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침몰 사고 원인을 놓고 북에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고에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분명한 것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그것이(북한의 개입) 사고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군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

리는 엄청난 비극에 대해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에 대한 판단은 한국 정부당국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다만 “우리가 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강운태-정동채-이용섭 ‘여론조사 경선’ 신경전 지지도 급상승 제동? 양강구도 전략?

“중앙당에 공정경선 요구하자” “사건건 제동 온당치 못해”

당겨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전당원 여론조사 경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포문을 연 것은 강운태 의원.

강 의원은 지난 29일 “광주시장 경선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경선 후보들이 중앙당에 공동으로 공정경선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제안에 ‘판지결기’식 정치공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선 후보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방법이 있다면 정식으로 중앙당 선관위에 제안하고 이번 경선이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타 후보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 기관은 매출액 기준 상위 1~20위 업체로 해야 하며, 조사 기관은 후보대리인의 추천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전 과정은 녹음돼야 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각 후보 측에 녹음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은 중앙당에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중앙당 고유 권한인 경선방식에 사건건 제동을 걸고, 유불리에 따라 요구조건을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섭 의원은 중앙당이 공정하게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1위와 2위를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며 “공정하게 전당원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1위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인 이용섭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강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정 전 장관이 각종 공세 등을 통해 경선 막판 관세 중앙당 개입, 조작설 등 각종 무머

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 전 장관의 지지도가 최근 급상승한 것에 대한 의구심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여론 조사에서의 지지도 선두를 최종 경선에서의 승리로 이어가려는 전략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강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정 전 장관이 각종 공세 등을 통해 경선 막판 관세 중앙당 개입, 조작설 등 각종 무머

를 ‘양강 구도’로 형성하려는 전략이

를 ‘양강 구도’로 형성하려는 전략이

신임 장·차관급 내정자 프로필

맹형규 행안부 장관

통신기자, TV 뉴스앵커 등을 거쳐 3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여권의 중진 정치인.



15대 총선 정계 입문 기자출신 3선

지난 15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대변인, 총재 비서실장, 기획위원장 등 일찌감치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고 17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 업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온화한 이미지와 함께 당직과

계과를 넘어서는 폭넓은 대인관계가 강점이라는 게 주위의 평. ▲서울(64) ▲연세대 정외과 ▲연합통신 정치부 기자 ▲SBS 앵커 ▲15·16·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위 간사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정부특보

외환시장 강경개입 ‘최틀러’



최중경 경제수석

금융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제무원료. 공인회계사로 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하다 행정고시 22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1979년 재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냈으며 2005년부터 세계은행 상임이사로서 선출돼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판단이 빠르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 과감한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최틀러’라는 별명도 회자된다. ▲경기 화성(54) ▲서울대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재경부 외환자금과장 ▲금융정책과장 ▲세계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1차관 ▲주 필리핀 대사

소신 강한 ‘보건 의료통’



노연홍 식약청장

영국에서의 오랜 학업과 부하직원의 가장 대소사까지 챙기는 부드러운 업무 스타일로 인해 ‘영국 신사’로 불린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국내 보건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 의료정책본부장을 맡는 등 복지부에서 몇 안 되는 보건 의료통으로 꼽힌다. 보혈급여과장을 지낼 때는 약값 인하와 참조가격제를 놓고 장관과 갈등을 벌였다. 판단이 빠르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 과감한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최틀러’라는 별명도 회자된다. ▲경기 화성(54) ▲서울대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재경부 외환자금과장 ▲금융정책과장 ▲세계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1차관 ▲주 필리핀 대사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 치 ●
최순출 전대통령만민당부근 광주에서 10분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드로본 전대통령 편의시설 이용가능 인연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 트이들이 편리하고 경기특고 편안한 전원생활 최적지입니다. 황토 흙벽돌 100평 사용하고 습도조절,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면후 단성피로 회복 아주 좋고 주인이 직접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완성되어 것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최적지)

매매가 :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 대지 : 250평 ●건평 :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차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 심야전기
- 조경 : 잔디, 소나무
- 건축준공 :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고아 슬라브, 한옥 전통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인테리어 휴향도 벽돌, 휴향도 바닥 편백나무, 소나무 미술품
- 2층 방가루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키북 시공)

●주인직거래●
꼭하시분만전화요망
☎011-634-4114

금산공인중개사

T.661-5686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득 -도로점용 허가 득 -마당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능)
- 대지, 창고 분할 매매가능
- 물류, 창고부지로 최적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아파트론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회사매각공고

◆ 위 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신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